

'기후변화 탄소중립 실천 주간' 운영

농진청, 20~21일 본청 국제회의장·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공개 토론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1일 이틀간 본청 국제회의장 등에서 '기후 변화·탄소중립 실천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최근 개발한 농업 분야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날(20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농업 연구개발(R&D)'을 주제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공개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또한 민간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법을 찾기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탄소중립 실천주간 포스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둘째 날(21일)에는 기후 예측과 적

응, 대응을 비롯해 저탄소 농업기술 등 우수기술 20종을 선발해 기술적 원리와 활용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며 우수기술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대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물 관리, 노지 발달물 스마트 관개, 반추 가축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장내 발효 조절과 탄소흡수 기술 등을 소개한다.

이미 제품으로 출시된 농기자재와 연구 기자재,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 등도 모형으로 전시한다.

특히 행사 기간에 최근 발간된 농업

기술서를 비롯해 기후와 탄소중립 관련 도서를 나누는 도서 교환 장터, 기후·탄소 정책·기술 퀴즈왕 선발대회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탄소발자국 줄이기와 차 없는 출퇴근 디지털 넷제로(Net-Zero) 등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연구개발과 최달순 과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대학에서 개발한 많은 유용한 기술이 서로 연결되면 더 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러한 연구개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생산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제3대 나경균 사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새만금개발공, 나경균 사장 취임

"공정·상식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 삼고 목표 달성해야"

새만금개발공사 제3대 나경균(羅庚均) 사장이 취임했다.

나경균 신임 사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 공사가 부동산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그 회복의 신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행동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공정을 달성을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로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분양을 시작하는 첫해로, 그간 6년 동안 우리 공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투자유치 방안 등

이 포함된 촘촘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수변도시 분양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제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이번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사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한편, 나경균 사장은 원광대학교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방법원 부장, 새누리당 전 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과정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 등 오랜기간 정당활동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K&T텍스 고문을 거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김재훈기자



김제 광활농협의 청년조합원으로 조직된 광활청년회가 지난 15일 광활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을 벌여 약 60여톤의 폐비닐 등을 수거했다.

광활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실시

김제 광활농협(임영용 조합장)의 청년조합원으로 조직된 광활청년회가 지난 15일 광활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벌여 약 60여톤의 폐비닐과 일반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이날 광활청년회 회원들은 광활농협의 중장비와 수거장소를 지원받아 우리농촌 환경지킴이를 자칭하며 수거 작업에 앞장서 큰 호응과 칭찬을 받았다.

수거작업에 참여한 백승환 조합원은 "우리지역의 폐비닐 중 대부분은 수거 차량으로 수거를 되고있다. 소량의 경우 그냥 방치되어 미관 및 환경보호에 좋지 않아 금일 청년 회원들과 함께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향후 지속 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활농협 임영용 조합장도 "바쁜시간을 쪼개서 영농폐기물수거에 동참한 청년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업용수자동화 통한 재해대응 능력 확대

"안전사고 예방·효율적인 시설운영 위한 자동화시스템 적극 운영 노력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용수배분의 합리화를 위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2023년 12월에 최종 준공했다. 이것은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CT)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이같은 물관리 과학화를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강우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되었다.

이로써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 긴급한 재난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농작물 및 시설물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가뭄, 홍수 등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과학적인 물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건설전북도회, 전주세무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주세무서는 지난 14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익성 악화로 지역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설업체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경영환경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10주년 '국민 참여 공모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고자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참여 공모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수급자 본인은 물론 미래의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등 다양한 입장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영상과 생활수기, 사진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손 글씨, 포스터로 구성했다. 손 글씨와 포스터는 각각 수급자와 학생이 참

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친 후 대국민 온라인 심사 이벤트를 열어 선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상 5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 35점 등 총 40점을 선정하고, 부상으로 총 17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단은 심사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 또는 사무국(02-6953-1310)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시스

